

## 박정애의 『행복한 페미니즘』

-반성과 대안의 행복한 조우

변신원

### I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 출발하기는 했는데 한참 길을 걷다보니 과연 그곳을 가야하는 건지, 혹은 이미 목적지에 다 와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가면 아무 것도 없다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눈총을 주는 집단이 있다면?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출정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던 사람들은 혹시 스스로의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에 빠져들 것이다. 그들의 고민은 옳은가.

그 고민이 옳은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질문하고 답하게 해주는 책이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내린 답변에 의해 행동의 준거가 견고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 무엇에 관한 지침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에 있어 올바른 지침서를 찾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벨 후스(bell hooks, 1952 ~)의 『행복한 페미니즘』은 그런 점에서 페미

니즘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학계에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한 페미니즘은 종종 난관에 부딪혀 왔다. 페미니스트들은 반남성적이거나 레즈비언이고 사랑을 일부러 왜곡시켜 가정의 안정을 파괴시키며, 여성을 일터로 내몰아 오히려 직장과 집안에서 이중의 노동에 지쳐 떨어지게 했다는 등의 수많은 음해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대중들과 결탁한 가부장제 매스미디어는 페미니즘은 죽었으며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댄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에게는 진히 책임이 없는 IMF의 경제적 위기는 이러한 담론을 효과적으로 유포하는데 적절한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들은 남성들의 기 살리기에 복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진영은 전보다 조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페미니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일까.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운동가인 벨 훅스의 글을 읽어보면 맥빠진 페미니즘의 현재 상태는 오히려 페미니즘 진영 자체의 전략부족에 불과할 것일 뿐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시작일 뿐인 운동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페미니즘이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각종 언론매체가 지닌 보수적이며 가부장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페미니즘이 지닌 멋있지만 추상적이기 만한 지침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친다. 페미니즘이 가부장제 사회라고 지칭되는 현 사회의 모순들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시선에 의해 불편하게 드러나 버린 현실에 대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동참한 사람들이 - 그에 대한 동참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불편해진 현실에 어리둥절해 있는 동안 구체적인 힘이 되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프다면 아프고 무책임하다면 무책임하달 수 있는 깨달음일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통찰의 출발점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일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소화된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오히려

“일상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를 텍스트 안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통찰은 저자가 흑인 여성이라는 계층적 위치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백인여성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페미니즘의 현장에서 그녀는 자매애와 여성연대를 부르짖는 백인 페미니스트 진영이 흑인여성들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페미니즘과 계층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백인 여성들에게 억압받아왔던 흑인 여성들이 자매애로 뭉치자는 구호를 들었을 때의 감격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백인페미니스트들을 목격”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장면, 반인종주의 페미니즘 운동만이 자매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정치적 토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장면”들을 목격하면서 추상적으로 페미니즘이기 만한 정치적 태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페미니즘은 추상화된 이론이어서는 안되며 사각지대를 무시하는 맹목의 운동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여성이되 그냥 여성이기 만한 여성은 없다. 그들은 부르주아이거나 프롤레타리아이며, 백인이거나 유색인이며 직업이 없거나 있고 어머니이거나 미혼모, 혹은 미혼녀이다. 반인종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정치적 태도는 페미니즘을 반남성주의라 비방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부장제의 편견과 다르지 않다. 이는 유비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현실적 문제에 무관심한 중산층 여성운동의 한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의 휴머니즘적 통찰이 두루 힘을 발휘하는 것은 타고난 통찰력과 가난한 미국 남부 시골 흑인 분리구역(Hopkinsville, Kentucky)출신 여성이라는 경험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 등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면서 서부 지역의 60년대 반전 운동, 인권 운동, 페미니즘 운동 등을 직접 보고 겪었고 『나는 여자가 아닙니까: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즘 이론: 주변에서 중심까지』 등 이론서와 인종·계급·젠더와 관련한 수많은 책을 썼다고 한다.

## II

『행복한 페미니즘』은 복잡한 이론서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이 실천이 아니라 일종의 아카데미즘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우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혹스는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현장에서 생산된 페미니즘 사상이 매타언어적이고 독점적인 전문용어를 만들어 내는 이론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동성을 잃은 페미니즘 사상은 젠더를 파는 하나의 학문분과에 불과함을 주장한다. 그녀는 전문가들을 위한 페미니즘 서적보다 오히려 노래나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지식의 공유를 선호한다. 이것이 최근에 양산되는 학문적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자리잡은 이 책의 좌표이다. 페미니즘이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의 종식’이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면 저자가 설정한 이러한 좌표 설정은 적절 타당한 것이다.

그러한 저자의 태도와 맞물려 책의 기술 방식은 자유분방하다. 본문에 기술된 내용들은 특별한 사유의 준거 틀이 있다기보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에 대한 반박이나 혹은 대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 방식은 한편으로는 장점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이 된다. 장점이라면 우선 읽기 편하다는 점이다. 완벽한 프레임으로 구성된 목차보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목차들과 일상으로부터 문제의 출발을 삼는 접근 방식은 부담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득력도 높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의 대중서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한편, 특별히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목차로 인하여 이야기가 때로 중복되거나 분산된다. 논리중심주의의 중앙집권적 태도의 오류를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생각의 갈피를 좀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은 것 같다. 저자의 통찰력과 감각이라면 대중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갖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 책이 지닌 많지 않은 오점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전 19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사랑, 결혼과 가족, 여성과 일, 남성성, 가

부장제적 폭력 등에 대한 내용들로 다시 간추려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치 페미니즘 정치성의 다양하고 복잡했던 논의의 역정을 축소해 보여주듯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러한 주제들을 250쪽 가량이 겨우 되는 자그마한 소책자에 담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 대한 저자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그건 저자의 단도직입적이며 명료한 접근방식이 이룬 결과이다. 선부른 절충에 의한 결론이 아니다. 페미니즘이 후광처럼 두르고 있는 술한 오해에 대해 답하면서 페미니즘을 살아있는 현장의 언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원제는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Feminism is for everybody)』이다. 페미니즘은 그것을 주장하는 여성이나 혹은 그것에 맞닥뜨리는 남성에게 모두 해가 되는 것이라는 흑색선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번역자는 이를 좀 더 감성적으로 의역(?)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면 결국 모두의 행복지수를 올려놓을 것이다.

### III

페미니즘이 난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그것은 오해이거나 혹은 설득력 부족, 심지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협한 태도에도 기인한다. 물론 매스미디어의 의도적인 왜곡에 기인한 바도 크다.

사실 페미니즘이 받는 오해의 내용은 다종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들은 사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혼의 경험이 결국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증오한다. 혹은 여성의 독립을 위해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독립은커녕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의 노동에 시달

리게 되었다. 게다가 가정에서 갈등까지 겪게 되면 그들은 차라리 집안 일만 하는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페미니즘은 유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문열의 『선택』을 낳았다.

이는 페미니즘의 설득력의 부족과도 연관된다. 왜 앞에서 제기한 오해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가. 왜 페미니즘을 통해 남성이 얻는 이익이란 고작 보다 여성화된 남성에 불과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가. 이러한 편견들에 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혹은 일방적으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란 으레 남성은 폭력의 주범이고 여성은 오직 폭력을 당하기만 하는 대상, 선량한 피해자라는 비현실적 구도를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성이 가정에서 행한 아동에 대한 폭력, 남편에 대한 폭력, 언어 폭력 등의 반격 속에서 여성운동은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한다.

이러한 오해, 설득력 부족, 여성성의 추상화 및 미화 등에 대해 대중매체가 적절히 왜곡한 페미니즘의 무력화는 혹스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우선 사랑에 대한 일침. 페미니스트들은 사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 속에서의 사랑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통제할 수 없다고 본다. 지나치게 낭만화된 사랑은 사랑의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유포시킨다. 사람을 패도, 진보 운동에 참가하지 못하게 가로막아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 놓고도 “열정이 저지른 범죄”라고 변명하는 것은 지배와 소유 개념의 가부장제적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지적은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 실은 가부장제적 이익에 기반함을 보여주며 상호존중하는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한 페미니스트적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가부장제 남성성에 대한 비판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가부장제 남성성은 “병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이고 유아적이게끔, 단지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에 심리적으로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색다른 답변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혹스는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가부장제 폭력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립 하면서 이를 폭력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로 확산시킨다. 집안에서의 가부장제 폭력이란 힘센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해도 무방하다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 때 여성들이 저지르는 어린이에 대한 수많은 폭력적 행위들은 또 하나의 가부장제적 폭력의 양태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자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지속적인 투쟁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운동의 일부라는 생각을 강조한다. 이들의 노력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시키는(심지어 전쟁에까지 확산되는) 운동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가정 폭력에서 아닌 가부장제 폭력이라는 용어의 변화는 이처럼 중요한 인식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한다.

#### IV

이 외에도 낙태, 동성애, 결손가정, 페미니스트 부모 되기, 종교에서 보이는 가부장성 등 작은 부분에 대한 세심한 통찰을 보여준 이 책은 지침서이자 개론서로서 손색이 없다. 무엇보다도 명료한 문제제기와 명쾌한 인식, 간결한 문체가 돋보인다. 번역서의 부자연스러움도 눈에 띄지 않는다.

페미니즘에 오랜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도 미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들을 다시 문제로 만들어 스스로 답을 찾는 하나의 전례로 참고해도 좋을듯하다.

페미니스트 입문자들은 이 책이 제시한 해결들 자체에 대해 논쟁을 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혹은 너무도 간결한 해결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 나가면 읽어 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행복한 페미니즘』도 그렇다.

